

# 민주당 조직력 vs 현역 프리미엄

# 현역의원 힘이나 재선 관록이나

##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윤재갑 vs 민생 운영일 격돌  
해남 윤씨 집안 경쟁 구도 '흥미'  
윤재갑 '모두 잘사는 곳 만들 것'  
운영일 '검증된 일꾼' 강조



학력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현)제20대 국회의원 (전)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주요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산모토피아' 건설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저장단지 구축 ·청년 및 주거 취약층 임대주택구축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광주~완도간 2단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고향발전기부금 법률 제정으로 지역 복지 확대

해남·완도·진도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65) 예비후보와 민생당 국회의원 운영일(62) 예비후보가 격돌한다.

윤재갑은 "모두 잘사는 곳 만들 것"을 공약으로 세를 불려나가는 윤재갑 예비후보가 현역의원을 꺾고 지역구를 탈환할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우며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하는 운영일 예비후보가 수성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선에서 탈락한 윤재갑 후보를 포함, 예선부터 본선까지 해남 윤씨 집안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해군 1함대 사령관 출신의 윤재갑 예비후보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고 바다를 지키며 청춘을 보냈다. 이제 고향 해남·완도·진도와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세상, 농어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도시와 농촌·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 남과 북에 평화가 꽃 피는 세상을 주민들과 더불어 만들고 싶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고 싶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시대에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더불어 잘사는 곳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운영일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지역민들로부터 국가대표 예산통, 지역 숙원 사업 해결사, 호자 국회의원으로 불리며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능력을 검증 받았다"며 "지역발전 책임자라는 신뢰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자산으로, 4년 더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하며 표발을 누비고 있다.

그는 "4년 연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남·완도·진도 지역 주요 SOC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검증된 능력을 갖춘 재선의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운영일 예비후보는 "호남에 필요한 정

치인은 검증된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의 밑거름을 깔았다면 향후 4년은 결실을 맺을 단계다. '일 잘하는 운영일에게 4년 더 일할 기회를 주자'는 지역 여론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호남은 항상 묻지마 투표가 아닌 일 잘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제대로 평가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의 공약은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 만들기 방침이 적었다. 출산 및 양육 관련 공약으로는 어린이 응급 및 임산부 100원 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어린이센터 확충을 약속했다. 산모들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산모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 직업 전문 상담시스템 구축, 해남·완도·진도 관내 고등학교 특수 언어 교육반 설치, 특수 기술 학교 설립 등을 내걸었다.

청년이 돌아오는 환경 조성 계획도 밝혔다. 청년 및 주거 취약층 임대주택, 재직 청년 나홀로 해외여행 지원, 농어업터전 만들기 지원, 관광 등 3차 산업 유치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산업 집중 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 집중 유치, 육성 계획 등이다. 중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제2의 고향 만들기 ▲평생 직업터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농어업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축수산 수

동저장단지 구축, 해남·완도·진도 지역 푸드플랜 지원, 농가단위의 공익형 위주로 직불제 개편, 분권형 자치농정 실현을 내놴다.

민생당 운영일 예비후보는 '운영일의 3대 비전, 15대 실천공약 프로젝트'를 꺼내 들고 현역 의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사를 자임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반영 및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해양수산·임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음료, 제조업에 쌀 소비 촉진 지원제도 도입해 소비확대를 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농업수입보장보험 시행 등을 통해 농어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남·완도·진도를 해조류 산업단지로 지정해 집중육성하고,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갯벌형 바다목장 조성, 연안정비 사업 등을 통해 농어촌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비전으로는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추진, 광주~완도간 2단계 고속도로 조기 추진 및 각종 연도·연륙사업 등을 통해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감면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고, 해남 오시아노 국민휴가마을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완도에는 해양치유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완도 수목원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관광·복지·교육 부문에서는 보건·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계획을 내놴다. 복지재원은 고향발전기부금 법안을 제정해 충당하겠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지역 청소년들의 대입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남·완도·진도·완도 등 향구 개발과 함께 권역별 연계 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자원 인프라를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영암무안신안

서삼석-이윤석 4년만의 리턴매치  
서삼석 조직력 앞세워 표밭갈기  
이윤석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 공략  
무소속 김팔봉·임흥빈도 출사표



학력	전남대 일반대학원 졸업(NGO학 박사)	연세대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경력	(전)민선 3·4·5기 무안군수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전)제18·19대 국회의원 (현)동신대학교 객원교수
주요 공약	·농어촌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방역부' ·친일영거격보장제도 등 농어민 소득보장 제도화 ·보건요양대학 설립 등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월출산 케어블카 건설 및 신성장 사업 유치 ·무안공항 주변 활성화 및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신안군 흑산공항 조기 건설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윤석 예비후보가 4년만의 리턴매치를 벌인다. 집권당 현역 국회의원의 우위가 막판까지 이어지느냐,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 판을 흔들수 있느냐로 관심은 압축된다.

서삼석은 민주당 경선에서 백재욱 후보를 누르고 기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다. 지역정치권에서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당 조직력 등을 바탕으로 서삼석 후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점에서 예비후보의 강점이다. 민선 3~5기 3선 무안군수와 전남도위원을 지내면서 선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삼석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전남 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들면서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펴온 점을 눈여겨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삼석은 "(재보궐로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제 2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광주전남 의원들 중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와 상위의 출석률 100%를 달성할 만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부한다"며 "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남도당위원장 활동을 통해 당정정과의 소통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비록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제 18, 19대 재선의원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다. 무안 출신으로 5~7대 3선 전남도의원, 7대 전남도의회 의장,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과 중앙을 넘나들며 활약, 인지도 측면에서는 서삼석에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 예비후보는 "(18, 19대 국회의원 당시) 1주일에 최소 2차례 지역구를 오갔으며,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상 침낭을 가지고 다니며 마을회관과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며 "지역민들께서 저의 충정을 아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예비후보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한 뒤 "강력한 3선 국회의원이 돼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당 조직력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예비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경력과 '지역별 맞춤' 공약을 앞세워 지지세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서삼석은 농어촌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방역부, 노인부 신설이 첫째 공약이다. 인수전염병(人獸傳染病)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부'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부' 신설을 위해 법률 제·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농어민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및 친일영거격보장제도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 풍작이 들면 되레 격정하는 농심을 달래고, 공익적 가치가 큰 농업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내에 농어업인 의료 보건 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놴다.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으로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여객선 공영제 강화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무안공항 경유 KTX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완공 ▲영암 대불산단 활성화 및 F1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 다각화 ▲신안의 흑산공항 조기 건설 등 지역 발전 현안사업 추진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서삼석은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차대한 선거"라며 "문재인정부가 개혁 민생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총선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이 예비후보는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각오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은 농업·어업·축산업이 복합된 지역이다. 유럽 대다수 선진국처럼, 농어민 연금을 확대 추진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농민들에 대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내건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영암군의 경우 ▲월출산 케어블카 건설 ▲대불산단단지 활성화 및 신성장 사업 분야 유치 ▲무화과, 대봉감, 달마지 쌀 등 지역 특산품의 고품질화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센터구축 ▲재활치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약속했다. 다만 국립공원 월출산 케어블카 건설은 환경훼손 논란을 비켜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군에는 ▲도서관 설립(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립(실내 스포츠, 미술, 음악, 댄스 활동 등 지원) ▲종합 의료센터 설립(24시간 응급실) ▲임성리역 KTX 정차 유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속추진(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무안공항 주변 지역의 활성화 및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 등을 내걸었다. 신안지역 공약으로는 천사대교의 완공으로 연륙을 통한 4계절 체류 관광지 조성, 정부차원의 친일영의 최저 생산비 보장, 흑산공항 조기 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예산 확보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고향을 발전시키는 일은 누구나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재선국회의원으로 능력 검증된 재가 강력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삼석 예비후보, 무소속 이윤석 예비후보 외에도 무소속으로 김팔봉(60), 임흥빈(59)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팔봉 예비후보는 고용노동부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공인 노무사다. 임흥빈 예비후보는 3선 전남도의원 출신으로 현재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